

의 안 검 토 보 고

1. 발의 또는 제출자 : 대전광역시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기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건 요지 : 별 첨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

1995. 2. .

내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진



대전광역시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995. 2.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대전광역시시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1995. 2. 16 대전광역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 2. 17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 안 이 유

이상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전의 이미지 정립을 위한 도시디자인 표준화사업(CIP)의 일환으로 새롭게 선정된 시 상징마크를 시기등에 적용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2. 주 요 골 자

가. 시기 및 표창장 등에 사용되는 문장, 휘장의 상징마크를 현대 감각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코자 하는 상징마크의 꽃잎 형태는 발, 터전, 무궁화 꽃잎을 상징하고, “ ” 형태는 대전의 큰 ‘大’ 자와 역동적으로 뻗어가는 발전의 이미지를 나타내며, 쾌적한 삶의 터전인 대전지역이 국토 · 교통 · 행정 · 과학 · 문화 · 유통의 중심지로 힘차게 도약하고 빛을 발하고자 하는 대전시민의 꿈과 이상을 표현한 것임.

나. 개정코자 하는 시기는 바탕은 대전옥색(PT3275C), 심볼마크는 밝은 금색, 글씨는 백색으로 하였으며 옥외 약식기(게양용)는 심볼마크 외곽선을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5mm 폭의 백색선을 주어 선명하게 제작토록 하였고,

다. 문장(철인)은 국제화, 세계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한글과 영자를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3. 검 토 의 견

본 안건은 세계화, 지방화에 부응하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대전이미지를 재창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94년 10월 시 상징마크를 새롭게 선정 변경함에 따라 시기등에 대하여 색상, 글씨, 규격등을 새로 규정하려는 내용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기의 바탕색은 대전옥색으로 하였고, 심볼마크는 밝은 금색으로 하였으며, 글씨는 백색으로 하였음.

그리고 옥외약식기(게양용)는 심볼마크 외곽선을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5mm폭의 백색선을 주도록 하였음.

또한 철인에 있어서는 앞으로 국제화, 세계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한글과 영자를 병행 사용토록 하였음.

금번 시기등의 새로운 이미지 개선은 지난 93년 10월부터 추진된 도시디자인 표준화사업(CIP)의 일환으로 시 상징마크가 변경됨에 따른 것임.

따라서 금번 개정안은 시 상징마크를 사용하는 시기등에 대하여 이에 맞게 새로운 색상과 규격등을 규정하는 것인데, 규격은 종전의 규격과 동일하게 하였고, 다만, 색상의 변경과 함께 시 상징마크의 작도법이 새로 명시되었다 하겠음.

시기 색상등에 있어서는 이미 관계 전문가의 이미지 구상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써 전체적인 색상, 글씨, 규격등 제반 구성면에서 우리시에 알맞는 내용이라고 보겠음.